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2016광주비엔날레 주제 '제8기후대' 확정

마리아 린드 총감독 "8기후대는 상상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

예술의 기능과 역할 모색

과정 중심 방식 12월까지 연중 행사

문화전당·사립미술관 연계

광주·전남 곳곳 지역밀착 프로그램

마리아 린드(오른쪽) '201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이 21일 주제 발표와 함께 기본 구상안을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해 광주비엔날레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는 점점 순수함을 잃어가는 예술의 본모습과 역할을 되찾으려는 의도를 담았다. 수단으로서의 예술이 아닌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예술 관련 교육, 담론 매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실행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과의 소통이 눈에 띈다. 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참여작가들을 초청해 광주에서 찾을 수 있는 작품 주제, 소재, 재료 등를 기반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라틴어 '상상의 세계'(mundus imaginalis)라고도 알려진 '제8기후대'는 인간의 상상력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들이 찾아낸 지구상 일곱개 물리적 기후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12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 철학자 소흐라바르디가 착안하고,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앙리 코르뱅(Henri Corbin)에 의해 다듬어졌다.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은 "제8기후대는 지상과 영적 세계 중간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상상과 구체적 현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며 "이번 비엔날레에서 예술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과 잠재력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고 소개했다.

21일 주제발표 기자회견장에서 마리아 린드 총감독은 현재 참여작가들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품과 기본 구상을 보여주며 이해를 도왔다.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라 가르시아(스페인) 작가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5·18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중심적 역할을 했던 '녹두서점'을 이번 비엔날레에서 재현한다. 실제 서점에서 판매했던 서적으로 꾸미고 당시 목격·경험했던 사람들과 1980년대에 관심있는 젊은층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현한다.

클레어 바클레이(스코틀랜드) 작가는 지역에서 '갓 만들기' 공예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비슷한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비엔날레 기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5월 방한해 실제 작품 제작에 들어간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항쟁 소식 '투사회보'를 만든 녹두서점. 2016 광주비엔날레에서 재현된다.

올해 비엔날레는 그동안 잘 시도하지 않은 과정 중심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은 "비엔날레가 끝난 12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접촉기회를 늘릴 예정이다"며 "예술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큐레이터팀과 작가 등이 협력체제로 1년 간 행사를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리아 린드 총감독은 큐레이터 최빛나, 보조 큐레이터 마르가리다 멘데스, 아자 마모우디언, 미쉘 웡과 함께 큐레이터팀을 구성했다. 또 광주 대인시장내 예술집단 '미테-우그로'를 지역협력 큐레이터로 지명해 지역과 소통에 나섰다.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월례회'(Monthly Gathering)는 대표적인 지역 밀착 프로그램이다. 매월 '미테-우그로 예술서가', '독서모임', '작가스크리닝', '작품포커스', '광주걷기' 등을 진행한다.

지난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스쿨'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 8개 기관과 연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총감독,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강의,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11월까지 총 51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세계100여 개 예술 기관·단체들을 '비엔날레 펠로우'(Biennale Fellows)로 지명하고 협업 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목 받지 못하는 중소 예술 기관·단체 활동을 재조명해 다양성과 공생에 바탕한 예술계 미래상을 제시하자는 취지다.

또한 비엔날레 전시관을 벗어나 광주 전남 곳곳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의재미술관 등 사립미술관이나 갤리리 등과도 연계한다. 비엔날레 진행과정과 논의된 결과물은 출판물로 발간할 예정이다.

마리아 린드 총감독은 "전세계적 유명한 예술행사가 전시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데서 답답함을 느꼈다"며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산하는 것 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화를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머나 먼 정상화

개혁위, 시민대책위 구성 등 제안

이사회 즉각 거부…내분 확인

광주시 "갈등 지속땐 예산 없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국제영화제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이사회 인적 쇄신과 개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제안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개혁위는 21일 오전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광주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테두리 상 적법성을 떠나 광주국제영화제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이사회, 광주시가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원회측과 이사회측은 현재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상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사회측 요청으로 구성됐었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무국은 6월30일 영화제 개최를 선언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년도 회계장부와 통장 중요 서류를 A상임이사에게서 돌려받지 못해 정산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사업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밝힌 정산서 제출 마감은 오는 3월말까지다.

양측은 일단 행사 지속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정산' 방법 등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제 조건'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광주영화제 이사회로부터 회계 서류 등을 훔쳤다며 고소당한 A 상임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사회는 항고 의사를 밝힌 후 아직 검찰청에 서류를 접수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환담 이사장은 "서류를 가지고 가 정산 작업 등을 못하게 하는 측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사회 인적 개편이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도 내부 분열로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적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갈등이 계속된다면 행여 정산이 끝나더라도 시는 어느 쪽에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지난 10년 가장 많이 읽은 소설 '엄마를 부탁해'

2위는 '꾸뻬씨의 행복여행'

지난 10년 동안 한국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소설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북뉴스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 자사 소설 누적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은 '엄마를 부탁해'였다고 21일 밝혔다.

프랑수아 롤로르가 펴낸 '꾸뻬씨의 행복여행'과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1권이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4위,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 픽처'가 5위에 올랐다.

한국 소설은 10위 안에 단 3권만 올랐다. 권비영의 '덕혜옹주'와 공지영의 '도가니'가 각각 8, 9위에 올라 체면치레를 했다. 이에 반해 일본 소설은 '1Q8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이어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그네'가 10위를 차지했다. 특히 하루키는 '상실의 시대'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나란히 16, 17위에 올리면서 20위권 안에 3권이나 책을 올린 작가가 됐다. /연합뉴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순천문화읍성 등 10개 선정

문화재청은 야간에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2016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으로 순천문화읍성 달빛야행 등 10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뽑힌 프로그램은 ▲완산 야행, 천년벗담(전주) ▲여름밤, 군산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군산) ▲정동 야행(서울 중구) ▲피란수도 부산 야행(부산 서구) ▲근대로의 밤, 7야로(夜路) 시간여행(대구 중구) ▲오색달빛 강릉야행(강릉) ▲청주 야행, 밤드리 노니다가(청주) ▲백제의 밤, 세계유산을 깨우다!(부여) ▲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경주) 등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의 주제를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로 정하고, 야경(夜景)·야로(夜路)·야사(夜史)·야화(夜畵)·야설(夜說)·야식(夜食)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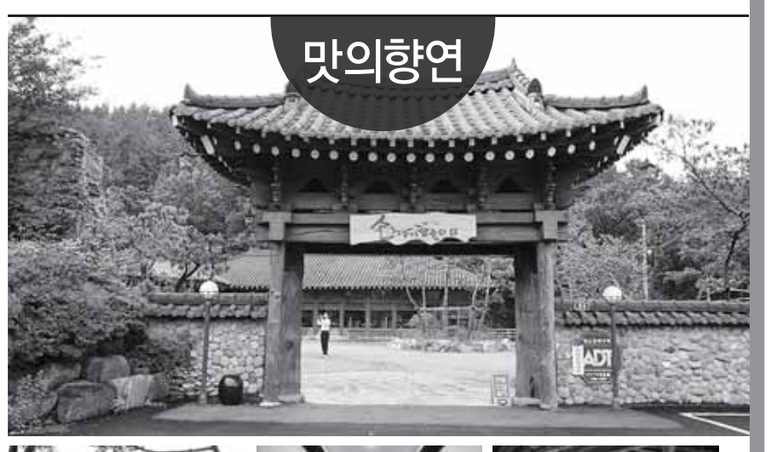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